

# 광주 증심사, 유튜브 활용 포교 '눈길'

### QR코드 및 동영상 서비스 제공, 신도 증가 효과

“이제 스님의 법문을 유튜브에서 보자” 소셜네트워크의 대표 주자인 유튜브를 활용한 포교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세계인들의 영상공유 공간인 유튜브(YouTube)에 사찰안내와 주지 스님의 법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해 탑재해 사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찰의 소식을 휴대폰 안에 담아 대중들과 소통하자”를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증심사의 유튜브 홍보에는 사찰 안내와 주지 스님의 기초강좌, 사찰 행사의 이모저모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있는 사찰 홈페이지와도 연동해 전개된다.

증심사 유튜브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찰 QR코드를 통해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증심사'를 검색하는 것이다.

증심사 관계자는 “신도들이 사찰에 올 수 없을 경우 집과 회사에서 휴대폰을 통해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이미 휴대폰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만큼 포교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심사 QR 코드

이번 유튜브 홍보방법을 통해 증심사의 포교방법도 변화했다. 먼저 증심사 안내방법이 달라졌다.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증심사는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사찰을 안내하는 것도 사찰측에서는 큰 고민거리였다. 증심사는 사찰 건물마다 QR코드를 설치해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으로 안내를 시작했다.

유튜브 홍보 이후 증심사 신도교육 입문자의 수도 대폭 증가했다. 신도기본교육의



유튜브를 활용한 포교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를 활용한 증심사 홈페이지

문화재 해설 고민거리 털어  
스마트폰·홈페이지 연동  
외국인 관광객 호응 높아

전 과정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되고 언제든지 다시보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문 교리 동영상상을 통해 광자를 찾는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때 필수적으로 찾는 과정이 됐다.

주말을 맞아 사찰 탐방을 온 김영민(상무중2) 학생은 “QR코드로 보니 사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심사 홈페이지 또한 대폭 개편됐다. 현재 증심사 홈페이지에는 가람도입부 영상과 증심사 역사(국문, 영문), 템플스테이(국문, 영문), 가람 둘러보기(따노라마, 국문, 영문), 주지스님 법문, 강좌, 법회 및 행사6개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증심사 측은 “젊은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과감히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와 QR서비스 등을 도입하게 됐다”며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안 마이산 탐사, 어르신 생일잔치 성황

진안 마이산 탐사와 쌍봉사가 가족과 떨어져 생일상을 받게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열어 지역 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9월 8일 진안지역 홀몸 어르신 100분을 초청해 생일잔치를 열었다.

진안 전통문화원에서 열린 이날 생일잔치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100개의 생일 케이크와 전주 한옥떡갈비 등이 차려졌다. 또 탐사 전주분원 실상사 밴드의 난타공연과 색소폰 연주도 펼쳐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이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쌀 500kg과 라면, 식료품등을 전달했으며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이 음식 준비를 맡았다.

올해로 4년째 열리고 있는 홀몸어르신 생일잔치는 진안 동부세마을 금교, 마이산 탐사, 쌍봉사,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진안자원봉사센터 등이 동참하고 있다.

탐사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개최



사진은 9월 8일 선운사 생태공원에서 열린 '공동체 화합한마당' 장면

전북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운골 공동체 사람들의 화합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상가 변영희, 선운산 도림공원 관리사무소, 석상마을 주민들은 9월 8일 선운사 생태공원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화합 한마당에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등 지역 기관장 상가,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은

준비한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담을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노래자랑, 즉구, 율놀이, 투호, 고리 던지기, 농구 자유루, 훌라후프 돌리기 등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 웃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각 종목당 우승 상품에의 추첨을 통해 압력밥솥 등 100여점의 상품이 제공됐다.

올해로 여섯번째 맞이하는 선운골 화합 한마당은 사찰과 주민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승속이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불교계,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전북 불교단체들이 가족과 고향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주 '우리는선우' (회장 오종근)와 '좋은 이웃' (회장 정용기)은 9월 6일 전주 완주 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체육관 인화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네팔,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카자흐스탄 등 13개국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06년 첫 시작 이후 올해로 10회 째를 맞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농악단의

길놀이와 비록해 전통민요와 국악 연주, 여성 댄스그룹 및 락 밴드 공연, 그레이스 공연단의 부채춤시연, 각 나라 민속 공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특히 송광사·금성암·원경사 등 지역 사찰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이 상품으로 전달됐다. 특히 천천클럽 회원과 전주 풍남 로터리 회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겨울의류를 기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베트남 출신의 은유편(28세)씨는 “오늘 이 행사를 오게 돼 기분이 너무 좋다”며 “앞으로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같이 놀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족인 김용(45세)씨는 “이 자리에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니 반갑고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진행하고 외국인 동포들을 위해서 자주 들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운영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지만 따뜻한 사람들은 아니다”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공군 307부대 의상암 산신탱화 점안 법회

서해안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공군 307부대의 의상암 산신탱화 점안법회가 9월 5일 봉행됐다. 부안 공군 의상암 법당에서 봉행된 이날 점안식에는 선운사 종고 스님, 진용 스님, 심학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부대장 정희두 중령, 공군본부 군중감 각원 스님, 상조 스님 등 군종교구 법사 스님과 불자장병, 전북불교대학 재학생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종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물까지 사랑하고 환경과 인권을 보살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곳 군법당에 환승이 연꽃이 꽃을 피웠다”며 관계자들을 치하하

고 “모든 장병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작은 씨앗이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위한 평화의 꽃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대장 정희두 중령은 방치된 의상암을 복원한 김윤봉 거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윤봉 거사는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정사와 부안 307부대 의상암의 공군 불자들을 위해 격주로 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김윤봉 거사는 “아들의 군 입대로 군법당에 관심을 갖게됐다”며 “공군 불자들이 편안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정일 작가 초대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9월 21일까지 '이이남의 기회 <공존, 자연으로부터 온 메시지>' 정일 초대전을 개최한다.

작가 정일 씨는 초대의 말을 통해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은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명체와 그 구성성분인 물질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공간이다. 여기에 '조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오랜 시간 동안 '조화로운 공존'이 지속된 가운데, 지적 생

명체가 그 지혜를 폭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풀이할 수 없는 '부조화'가 발생되어 더 이상 공존이란 말이 무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본 작가는 예술이 감당하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공존'을 열망하며 이러한 부조화스러운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화면에 가감 없이 서술,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안 또는 현상직시, 현상인식에 대한 질문, 제안 등의 메시지를 자연에서 찾은 알파벳 형상 사진문자로 조합하여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 4대 종교인 백제문화유적 역사탐방

전라북도 4대 종교 지도자들과 9월 10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역사탐방을 실시했다. (사진 위) 세계종교평화협회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4대종교인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은 80여 종교 지도자들은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출발해 고도리 석불입상, 서동 생가터, 익산토성, 미륵사지까지의 8km 구간을 도보탐방했다.

이어 서구식 건축양식과 전통건축양식을 잘 절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바위성당, 두동교, 원불교중앙총부 등 종교성지를 버스투어하며 각 종교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금산사 불교국장 지월 스님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재는 우리지역의 자랑이고 우리불교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할 일이다”며 “찬란했던 천 년 전의 자랑스런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제 곧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현한 진시사리가 다시 석탑에 봉안되게 된다”며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친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4대 종교인과 역사탐방을 하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중요한 벽을 허물고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묘법연화경

#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인물상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촉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연발품(14:07)